

# 향가 연구 방법론

- 공과 한계, 지향점 -

이도흠\*

---

## 차례

---

1. 머리말
  2. 역사·실증주의 연구의 공과 한계
  3. 종교·사상적 연구의 공과 한계
  4. 맑스주의 연구의 공과 한계
  5. 민속학적 연구의 공과 한계
  6. 구조주의적 연구의 공과 한계
  7. 정신분석학적 연구의 공과 한계
  8. 和靜詩學의 研究
  9. 문화사적 연구의 공과 한계
  10. 향가 연구의 지향점-맺음말을 곁하여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근대적 방법론과 비평이론으로 향가를 연구한 지 100주년이 되었다. 이에 실증주의에 서 기호학에 이르기까지 향가 텍스트를 비평이론이나 연구방법론을 통해 문학적으로 해석 한 연구에 한정하여 공과 한계를 살펴보고 앞으로 향가 연구가 지향할 바를 모색하였다.

향가에 대한 근대적 연구는 나름대로 장점도 있었고 단점도 있었다. 역사·실증주의 연구는 실증 자료를 통하여 관련된 객관적 실증을 복원하는 데 공헌하였지만 문학성을 상실 하였다. 마르크스주의 연구는 향가의 사회경제적 맥락을 밝히는 대신, 향가의 해석을 그 맥락에 종속시켰다. 반면에, 형식주의, 구조주의, 기호학의 연구는 향가의 문학과 시학, 구조적 의미를 드러냈지만, 맥락에 바탕을 둔 해석을 소거시켰다. 민속학적 연구는 향가 와 관련설화의 주술적인 요인을 밝혀내는 데는 탁월했지만 주술성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

---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는 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다. 정신분석학적 연구는 향가나 관련 설화에 관련된 인물의 내면심리, 무의식, 욕망을 잘 드러냈지만, 서정 양식으로서 향가의 특성을 드러내지 못한 채 노래 텍스트와 관련설화와 결합하여 구성된 서사 속의 인물의 심리분석에만 치중하는 단점을 갖는다. 화쟁시학은 이런 단점을 극복하려고 형식주의와 맑시즘을 종합하였고, 향가 텍스트를 내재적으로 분석하여 시학적 해석을 하여 서정성과 문학성을 드러내면서도 사회문화적 맥락과 종합한 해석을 하였다. 하지만, 그 평가는 후학에게 맡긴다. 문화사적 연구는 서정주체를 중심으로 문화사의 기반 위에서 서정적 의미와 수신자의 효용적 의미를 드러내는 데 성공했지만, 좀더 구조적이고 기호학적인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근대의 종점에 서서 보면 향가의 근대성을 완성하려면 아직 더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하다. 2018년 오늘 향가의 근대를 넘어서서 지향해야 할 향가의 탈근대는 무엇일까. 동일성에서 차이로, 가부장주의에서 페미니즘으로, 오리엔탈리즘에서 탈식민론으로, 미메시스론에서 판타지론으로, 인간중심주의에서 생태론으로, 주체중심주의에서 해체와 타자성(alterity)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민족주의와 오리엔탈리즘, 근대적 국가관을 넘어서 동아시아의 지평에서 해석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주제어: 향가, 역사·실증주의, 종교·사상연구, 맑스주의, 민속학, 구조주의, 정신분석학, 화쟁시학, 문화사적 연구

## 1. 머리말

1918년에 가나자와 쇼사부로(金澤庄三郎)가 근대 이후 처음으로 <처용가>를 해독한 이후 어느덧 100년을 맞았다.<sup>1)</sup> 신라에서 고려시대까지 향유되었던 향가는 조선조 이후 박제화하였다. 그러다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지만, 국학임에도 일제강점기에 가나자와와 더불어 아유가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 오쿠라 신페이(小倉眞平) 등 일본인에 의해 근대적 방식의 향가 연구의 서장이 열렸다. 의도했던 학문적 순수성에 입각했든, 이는 민속학이란 학문이 유럽 제국주의 세력이 식민지를 원활하게 지배하고 경영하기 위한 일환으

1) 金澤庄三郎, 「吏讀の研究」, 『朝鮮彙報』4, 朝鮮總督府, 1918.; 고운기, 「향가의 근대 1-金澤庄三郎와 鮎貝房之進의 향가 해석이 이루어지기까지-」, 『한국시가연구』, 한국시가학회, 25권, 2008년 11월, 6~7면 재인용.

로 태동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특히 일제는 한국 고대의 역사와 문화, 언어를 당시 유럽으로부터 유입한 근대 학문 방법론으로 분석함과 아울러 타율성론, 정체론,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의 식민주의 사관에 껴맞추어 해석하였으며, 향찰에 대한 연구 또한 일선동조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연장선이었다.<sup>2)</sup> 이에 맞서서 민족주의 내지 국학자의 자존심을 걸고 신채호<sup>3)</sup>와 양주동의 연구가 이어졌고,<sup>4)</sup> 조운제는 향가를 국문학에 자리매김하고 국민문학으로서 가치를 부여하였다.<sup>5)</sup> 그 후 국문학의 진정한 남상이자 정수인 향가의 어석과 문학적 해석에 관련된 논문이 2,000여 편이 훨씬 넘게 상재되었다.

이제 향가 연구 100주년을 맞아 냉철하게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향가 텍스트를 비평이론이나 연구방법론을 통해 문학적으로 해석한 연구에 한정하여 공과 한계를 살펴보고 앞으로 향가 연구가 지향할 바를 모색한다. 실증주의로부터 시작하여 100년 동안 행해진 다양한 방법론에 대해 이론의 핵심을 서술하고, 필요에 따라 향가에 적용한 사례를 든 다음, 공과 한계에 대해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향가연구가 지향할 점에 대해 서술한다. 단, 계보학을 바탕으로 연구사를 정리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 물론 모든 학자들이 이 의도를 가지고 연구한 것은 아니고 학문적 순수성에 입각하여 연구한 이들도 있었다. 향가에 국한하여도, 가나자와는 일선동조론에 충실하였고 아유가와 오키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다(고운기, 위의 논문, 5~36면.). 그럼에도 일제는 후자까지도 식민지의 기획에 이용하였다.

3) 신채호, 「조선 古來의 문자와 시가의 변천-처용가 해독」,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24, 1월 1일. 고운기, 위의 글, 참고문헌 참조함.

4) 梁柱東, 「郷歌の解讀, 特に願往生歌に就いて」, 『靑丘學叢』19, 靑丘學會, 1935. 1~45면.; 梁柱東, 『朝鮮古歌研究』, 博文書館, 1942.

5) 趙潤濟, 『朝鮮詩歌史綱』, 東光堂書店, 1937., 趙潤濟, 『國文學史』, 東國文化社, 1949, 趙潤濟, 『韓國文學史』, 東國文化社, 1963.

## 2. 역사·실증주의 연구의 공과 한계

“실증주의란 일체의 주관적이고 선협적인 사변을 배제하고 객관적 관찰과 실험을 통하여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방식이다. 실증주의는 “관찰 → 귀납적 일반화 → 가설의 설정 → 실험을 통한 가설의 검증 → 가설의 수용 혹은 기각 → 지식의 생성”의 단계를 거친다.”<sup>6)</sup> 향가 연구에서 이 방법론은 역사 전기 비평과 결합하여, “착상 → 귀납적 일반화 → 가설의 설정 → 향가와 삼국유사 관련 기록, 작가와 연관된 실증적 자료 수집과 검증 → 세계의 재구성(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가, 당대 사회 문화, 역사에 대한 재구성) → 재구성한 작가와 세계를 향가와 동일한 것으로 유추하며 해석하기 → 가설의 수용 혹은 기각 → 해석과 지식의 생성”으로 진행되었다.

한 예로 <혜성가>에서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관련 기록인 「감통(感通)」 편목의 ‘융천사(融天寺) 혜성가(慧星歌) 진평왕대(眞平王代)’ 조의 기록을 보면, ‘有彗星犯心大星’과 ‘日本兵還國’이 서로 맞선다. 전자가 역사적 사실일 경우 후자는 효험을 강조하기 위한 부차적 표현이 되며, <혜성가>의 성격 또한 주술적 힘을 빌려 혜성을 물리친 주술가(呪術歌)다. 반대로 후자가 역사적 사실일 경우 전자는 상징적 표현이 되며, 혜성가는 화랑이 침략한 왜군을 물리친 화랑찬가다. 문제는 정사인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新羅本紀)」 ‘진평왕’ 조를 보면 진평왕(眞平王) 579년에서 632년까지 54년에 걸친 재위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혜성의 출현 기록이나 왜군이 침략한 기록도 없다는 점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실증적 연구가 행해졌다.

- 착상: 혜성이 출현하면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다.
- 귀납적 일반화: 혜성은 신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천문현상이다.

6) 이도흠, 「향가텍스트와 서사맥락의 합일문제」, 『한국시가연구』, 13집, 한국시가학회, 2003년, 12면.

- 가설의 설정: 진평왕 재위 시기의 정사의 기록 가운데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본기(百濟本紀)」나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 중국이나 일본의 사료에도 혜성출현의 기록이 있을 것이다.
- 실증 찾기와 검증: 혜성이 진평왕 원년, 16년, 27년 등 세 차례에 출현하였는데, 원년인 백제본기의 기록(“長星竟天”)은 하늘에서 마쳤다고 하여 방향이 없고, 27년인 『隋書』 「隋煬帝」의 기록(“二月己丑 彗星見於奎 掃文昌 歷大陵 五車 北河 入太微 掃帝坐 前後百餘日而止”)은 문창, 대릉 등의 별이 십대성과 방향이 반대쪽이므로 혜성과 관련이 없으며, 16년의 「백제본기」의 기록(“星孛于角亢”)은 각항이 십대성과 가까운 별이므로 이것이 혜성의 동인이 된 혜성출현일 것이다.
- 세계의 재구성: 당대 신라인은 천상계 질서와 지상계 질서가 동일한 세계관을 가져 혜성이 출현하면 지상에서도 혼란이 올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백제 위덕왕(威德王) 41년(진평왕 16년, 594년)에 혜성이 출현하여 신라, 혹은 신라왕을 상징하는 십대성을 스치고 지나자 신라인은 이를 흉조로 읽고 두려워하여 금강산으로 산행을 떠나던 거열랑(居烈郎), 실처랑(實處郎), 보동랑(寶同郎) 등 3천여 명에 달하는 세 화랑의 무리도 산행을 멈추었다. 이 세계의 부조리에 대한 현실적 대응으로 맞서서 싸울 준비를 하는 한편, 문화적 대응으로 융천사(融天師)가 혜성을 불렀다.
- 향가와 대비한 해석: 진평왕 16년에 혜성이 출현하여 신라왕을 상징하는 십대성을 스치고 지나가자 이를 흉조로 해석하고 두려워하자 융천사가 혜성을 불렀으며 이후 혜성이 사라졌다. 이처럼 혜성은 ‘지금 여기에서’ 제재초복(除災招福)의 주술적 소망을 형상화한 주술가다.<sup>7)</sup>

이 방법론이 아니었다면 향가의 근대는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유럽에서도 미신과 비합리와 야만이 지배하던 중세시대의 ‘주술의 정원’으로부터 ‘계몽의 공론장’으로 나아가게 한 것은 과학과 이성이고, 이 과학적 실험과 진리의 획득에 결정적 구실을 한 것이 바로 실증주의다. 스탈 부인(Madame de Staël)과 생뜨 뵈브(C. A. Sanite-Beuve)와 떼느(H. A. Taine)를 거쳐

7) 조동일, 「彗星歌의 창작 연대」, 『백영 정병욱선생 환갑기념 논총』, 신구문화사, 1982, 323~324면.; 이도흠, 『혜성가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 논문, 1984, 22~26면, 40~42면을 합성함.

확립된 문학 분야의 실증주의도 신학적이거나 주관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근대 문학 비평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수용된 인문학 분야의 실증주의는 한국사와 한국 문학을 근대적 학문 체계로 정립하는 초석이 되었다. 가나자와, 아유가이, 오키라 등이 1918년부터 선편을 잡았고, 그 기저에는 “형식과 내용의 체계를 중요시하는 구조주의자의 모습이 있었을지라도,”<sup>8)</sup> 조운제와 김태준은 역사·실증주의를 토대로 국문학의 서막을 열었다. 이후 향가 연구 가운데 이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 논문이 적어도 80% 이상 점유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이 생산되었다.

“아는 만큼 본다.”라는 것이 전적으로 옳지는 않지만 일정 정도는 타당한 만큼 향가의 역사적 배경과 작가나 향유층에 대한 사실이 추가될수록 작품의 의미, 또는 작가와 향유층의 의도는 점점 더 명료하게 드러난다. 또 이런 방법은 검증된 사실을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기에 상당한 학문적 객관성을 획득한다. 향가의 경우 작품을 창작하고 향유한 역사적, 사회 문화적 배경, 서사 맥락에 연관된 역사적 사실을 모르고서 작품을 연구할 경우 주관적 오류를 범하기 쉽다. 어학적 주석이나 작품의 고증을 면밀히 하고 작품을 생성하고 향유한 시대나 작가의 역사적, 사회 문화적 실증에 대하여 많이 알수록 향가를 보는 눈은 좀더 총체성을 획득한다. 이에 향가의 의미를 제대로 캐기 위해서는 실증적 연구가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작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방법의 연구는 첫째, 향가의 문학과 예술성을 알아갔고 향가 연구를 시학(詩學)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이 때문에 향가 연구를 통하여 텍스트 자체의 특질과 형식미, 서정성, 미학적 가치를 드러내기보다는 시대적 배경 등 작품의 주변상황을 고증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소모하였다. 심지어 「서동요」의 작자를 놓고 설전을 벌인 일부 논문처럼, 작품 분석은 단 한 글자도 없이 역사적 실증을 나열하는 데 그쳐 문학연구가 아니라 역사연구라 해도

8) 한창훈, 「초창기 한국 시가 연구자의 연구방법론-조운제, 김태준의 초기 시가 연구를 대상으로」, 『고전과 해석』, 제1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06년 10월, 187면.

과언이 아닌 경우도 있었다. “〈혜성가〉 노래 텍스트에서 핵심은 객관적 천문 현상인 ‘혜성(彗星)’을 흉조로 해석하는 데 맞서서 혜성이 빗자루와 유사하고 ‘소성(掃星)’으로 불린 은유적 유추를 바탕으로 ‘길쓸별(道尸掃尸星)’로 바꾸어 불러 화랑이 앞길을 쓸어주는 별이란 해석의 길을 열어 혜성에서 흉조성을 제거하고 길조로 전환하고, 이 해석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당대 신라인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동해 바다에 나타나는 신기루를 왜구의 선단으로 착각하였는데 그것이 실은 신라를 지키는 호국신장의 의미를 갖는 ‘건달과성’이었다는 것-을 초구에 부연하면서 초구와 승구를 대구(對句)로 배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현재 사실로 존재하는 재앙-왜군의 침략과 혜성의 출현-을 언어에 의해 선행적으로 건달과성과 길쓸별로 표현하여 자연계와 인간계의 질서를 모두 회복하고 있다.”<sup>9)</sup>

둘째, 이 작업은 끊임없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 작업’이 될 수 있다. “일본의 천문학자 요시다 세이치[吉田誠一]의 계산에 따르면 진평왕 9년인 587년에 프랑스의 장 풍, 피랑쥬 강바르, 아돌푸 강바르가 발견한 풍-강바르(Pons-Gambart)라는 혜성이 출현하였으며, 이 혜성은 최고로 밝을 때 2등성으로 빛나므로 맨눈으로 관측이 가능하나 이것은 남반구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일본을 중심으로 할 경우 8월에 3등성, 9월에 4등성으로 빛나 8, 9월에 맨눈으로 관측이 가능하다.”<sup>10)</sup> 수많은 사료를 동원하여 연구자의 가설을 입증하는 실증을 찾아 발표된 썩 훌륭한 논문도 이를 반박하는 다른 실증이 발견되면 한 순간에 무너진다. 이처럼 검증은 계속 검증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칼 포퍼는 검증(檢證)이 아닌 반증(反證)을 통하여 진리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실증주의를 한 단계 높이 발전시켰다. “이론의 과학성을 구성하는 것은 그 이론을 전복할 수 있는 가능성, 혹은 그 이론의 반증 가능성이다.”<sup>11)</sup> 과학과

9) 이도흠, 앞의 논문, 41~42면, 46~52면. 참고함.

10) [www.aerith.net/comet/](http://www.aerith.net/comet/)와 <http://neo.jpl.nasa.gov/orbits/>참고.

11) 칼 포퍼, 이명현 역, 『열린 사회와 그 적들』 2권, 민음사, 1982, 359면.

사이비 과학을 구별하는 확실한 증거는 검증 가능성이 아니라 반증 가능성의 원칙이다. 앞으로 실증주의적 접근을 시도하려는 연구자는 자신의 가설을 입증하는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실증 찾기에서 벗어나 반증의 가능성에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래야 더욱 탄탄한 객관성을 획득할 수 있음은 물론 해석의 지평을 축소하는 오류를 면할 것이다.

셋째, 실증주의는 이미 객관적으로 인식된 것, 검증된 것, 이해된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이해와 관찰 방식은 선입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철저히 과거에 얽매인다. 그러나 이해란 확실히 전통적 견해에 동화되거나 옛날부터 신성한 것으로 여겨오던 것을 승인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sup>12)</sup> 때문에 이 방법론은 문학과 예술이 새로운 창조를 이룩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의 지평을 여는 것을 등한히 하며 과거에 의존하여 해석과 평가를 내리도록 하고 기존 체제의 코드, 이데올로기 등을 답습하도록 한다. 아는 만큼 보는 것도 일정 정도 사실이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읽기를 통해 텍스트의 심층 의미, 숨은 신화를 캐 수 있다.<sup>13)</sup>

넷째, “실증주의는 특히, 인간의 가치와 의미의 영역, 즉 인간의 행위와 이해를 감싸 안는 휴머니티의 창조로서 사회역사적 세계를 설명하는 데 실패했다.”<sup>14)</sup>

다섯째, 향가가 담고 있는 세계와 삼국유사는 신화적 층위와 역사적 층위, 판타지와 미메시스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 연구는 전자의 세계마저 후자로 끌어내려 역사화하여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다.

마지막으로, 역사주의적 방법은 의도적 오류(intentional fallacy), 영향

12) Hans-Georg Gadamer, tr. William Glen-Doepel, *Truth and Method*, London: Sheed and Ward, 1975), p. xxv.

13) 지금까지 첫째, 둘째, 셋째는 이도흠, 「서구 문예비평 이론 수용의 功과 過」, 『韓國詩歌研究』, 제4집, 1998, 40~41면. ; 이도흠, 앞의 논문, 12~18면. 참고함.

14) Alan Swingewood, *Sociological Poetics and Aesthetic theory*,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86), p. 26.



론적 오류(affective fallacy)를 범한다.<sup>15)</sup>

### 3. 종교·사상적 연구의 공과 한계

역사·실증주의적 연구와 비슷하면서도 차이를 갖는 방법론이 종교·사상적 연구다. 이는 문학작품이 작가의 의도와 사상의 반영이라는 전제에서 역사·실증주의 방법으로 작가의 종교와 사상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의 주제와 내용을 종교·사상과 동일화하여 해석한다.

향가는 절이 별처럼 들어서고,<sup>16)</sup> 불국사와 석굴암과 같은 고도의 예술품이 만들어지고 양인(良人)마저 부처가 되기를 염원하여 힘써 수행정진을 한 시대의 소산이다. 게다가 향가의 작자 가운데 상당수가 ‘사(師)’로 표기된 승려랑(僧侶郎)이다. 향가에 불교 사상이 강력하게 반영되어 있기에, 이는 당연히 필요한 방법론이다. 이 연구로 향가에 담긴 의미가 제대로 해명되고 표층적 의미를 넘어 심오한 진리의 세계에 다가갈 수 있었다. 내용만이 아니라 불교의례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향가의 창작동기, 향가와 관련된 의례와 문화의 의미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연구는 자칫 향가를 작가의 의도와 사상의 반영물로 전락시킬 수 있다. 작가의 의도와 사상이 어느 정도 작품에 반영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작품은 작가의 의도와 사상을 넘어서서 형상화할 때 좀더 높은 수준의 미학적 성취를 할 수 있다. 향가는 현실과 사상을 거울처럼 반영한 반영상과 이를 프리즘처럼 형상화한 굴절상의 결합체인데, 이 연구는 후자의 해석과 평가

15) William K. Wimsatt and Monroe C. Beardsley, *The Verbal Icon: Studies in the Meaning of Poetry*, Lexington: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82, pp. 3~19, 21~39.

16) 지금까지 경주 남산 지역에서만 발견된 절터가 120곳이 넘는다. 삼국유사의 이 표현이 그리 과장이 아니다.

를 놓치고 전자만 드러낼 수 있다. 최상의 사상가가 최상의 시인이 될 수 없으며, 작가가 의도적으로 사상이나 이념을 드러내려 할수록 그 의도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가치를 갖는다 하더라도 미학적 가치는 떨어지며 정치적 효과도 반감된다. 그러므로 작품과 사상, 이념과의 유사성을 캐는 비평은 그 작품이 3류임을 증명하는 작업일 뿐이다.

둘째, ‘미륵(彌勒)’이라는 어휘가 나왔다고 ‘미륵사상’, ‘미타(彌陀)’라는 낱말이 있다고 해서 ‘미타사상’으로 해석하는 등 조야한 분석수준에 머문 연구도 많다. 어휘의 차용만으로 종교와 사상의 수용을 동일화할 수 없다. 전체 내용과 구조가 그 사상이나 세계관과 동일한 것을 입증해야 한다. <안민가>의 결구, “아, 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나라 태평하리이다”가 『논어(論語)』, 「안연(顏淵)」편과 유사성을 갖는다는 근거로 유교의 이념이 반영된 노래로 단정할 수 없다. 그와 같은 논리라면 <안민가>는 당대에 호국 삼부경이었던 『금광명경(金光明經)』의 「사천왕호국품(四天王護國品)」, 『인왕경(仁王經)』 「호국품(護國品)」, 또 『승군왕소문경(勝軍王所問經)』의 문구와는 거의 전편이 유사하다.<sup>17)</sup> 그렇다고 안민가를 유학이 아니라 불교의 안민호국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노래로 단정을 내리는 것도 실증적 오류의 답습이다. <안민가>는 유교와 불교가 하나로 혼용되어 있으며, 노래의 전

17) 『金光明經』, 「四天王護國品」에 “세존이시여, 우리들 四天王은 勸心하여 이 나라의 王 및 國土와 人民을 옹호하여 哀患을 제거하고 安穩을 얻게 하려 하나이다. …우리들 四天王은 이제 이 나라의 王 및 國, 人民으로 하여금 一切 安穩具足하고 患이 없게 할 것이로다.”(大唐 三藏 沙門 義淨奉 制譯, 『金光明經最勝王經』, 四天王品第六, 『大正藏』, 第16冊, No.0663, p. 03411a4~0341a18.)라고 적고 있다. 『仁王經』, 「護國品」에도 “나라가 어지러우면 귀신이 먼저 난을 일으켜 백성이 혼란에 빠지니…대왕이 이 경전을 읽는다면 護國할 뿐만 아니라 護福할 것이니…”(三藏 鳩摩羅什 譯, 『佛說仁王般若波羅蜜經』 卷下 護國品 第五, 『大正藏』, 第8冊, No.0245, p. 0830a09)라고 말하고 있다. 또, 『勝軍王所問經』에는 <안민가>의 初句와 거의 같이 “慈心으로서 諸人民을 보기를 꼭 자식같이 하며, 그의 人民 또한 王을 부모와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宋 施護 譯 『佛說勝軍王所問經』(金岡秀友, 『佛敎의 國家觀』, 總和閣, 1978, 122면, 재인용).

체 구조는 당대의 세계관인 화엄만다라와 구조적으로 상동성을 가지며 화엄 연기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 종교와 사상은 맥락과 권력의 관계에 따라 이데올로기로, 가치관으로, 담론으로 변한다. 이에 종교·사상적 연구는 작품의 내용과 구조를 세계관의 내용과 구조와 관련시켜 해석하고 정치적, 사회적 맥락과 연관하여 이데올로기와 담론의 층위에서의 해석도 결합해야 한다. 아울러, 삼국유사에 대해 조금만 더 면밀히 분석하면, 신라시대는 온전한 불교시대라기보다 불교와 샤머니즘, 풍류도가 하나로 어우러진 무불(巫佛) 혼용기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무시하고 불교로만 해석하려 하면 그 저층에 자리한 샤머니즘적 구조와 의미를 놓칠 수 있다.

#### 4. 맑스주의 연구의 공과 한계

맑스주의 비평은 유물론적 변증법에 따라 상부구조인 예술작품과 이를 형성한 사회경제적 토대를 변증법적이고 총체적인 관계로 조망하고 가치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토대가 상부구조인 이데올로기와 문학과 예술을 결정한다는 관점을 철저히 유지하는 “기계론적 맑시즘 비평은 예술작품과 사회현실, 사회경제적 토대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전제 아래 작품이 생산된 토대, 토대를 구성하는 생산력과 생산관계, 계급관계 등에 대하여 면밀한 연구를 수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이것이 예술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 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예술작품이 이데올로기의 산물로서 어떤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으며 이 이데올로기는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사회계급 투쟁은 내용과 미학형식에 고루 반영되어 있는가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런 후 이 작품이 당대 사회 현실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낮은 계급의 이익에 얼마나 부합하였는지에 대하여, 나아가 타락한 사회에 얼마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였는지에 대하여 평가한다.”<sup>18)</sup>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생산하고 배나무에서 배를 따야 하듯, 부르주아 관점을 택하는 작가들은 노동계급의 운동에 적대적이다. 경제문화적으로 쇠퇴하는 시대에 예술 그 자체는 확실히 퇴폐적이다.<sup>19)</sup>.”

“계급사회에서 힘겨운 육체적 노동에 동원된 것은 근로 인민대중이며 그들이 일하면서 노동가요를 부르게 되는 조건에서 풍자가요가 노동가요와 쉽게 결합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풍요>는 바로 이런 노동가요의 특징을 띠고 이 시대 근로인민들이 불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풍자적 민요이다. … 『삼국유사』 권4에는 ‘지금까지 이 지방 사람들이 방아를 찧거나 힘든 일을 할 때는 다들 이것을 불렀다.’고 한 것으로 보아 가요 <풍요>가 인민구전가요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우로는 고대 사회의 노예노동에서 기원 하였으며 아래로는 경상도 일대의 달구소리의 전신으로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 노동가요인 <풍요>에는 부처 앞에서 공덕을 닦아야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고 하는 불교의 기만적 설교에 의하여 힘겨운 부역을 강요당하는 인민들의 불만이 표현되어 있다. 그것은 서정의 흐름으로 보면 온다는 감정, 서럽다는 감정, 그리고 공덕 닦으러 온다는 세 단락의 감정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 각각 두 구의 대응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다.”<sup>20)</sup>

문학 텍스트 바깥의 맥락 가운데 경제적 요인이 일방적으로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은 사실이다. 이에 위의 연구는 향가를 물질 토대인 당대 사회의 노동과 계급 모순과 연관시켜서 <풍요>의 작자 및 향유층이 겪고 있는 삶의 모순과 세계의 부조리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었다. 삶을 추상화하지 않고 삶의 구체성에 입각하여 신라 당시 사회의 양인(良人)의 삶을 그를 둘러싸고 있는 구체적 사회현실과 관련시킨 것은 이 비평의 미덕이다. 주로 귀족과 승려, 화랑 등 엘리트의 관점에서 연구되던 향가 연구를 낮은 계층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나 인간 구원이라는

18) 이도흠, 앞의 글, 41~42면. 참고함.

19) G. Plekhanov, *Art and Social life*, London: Lawrence & Wishart, 1953, p. 223.; Alan Swingewood, *ibid.*, p. 9. 재인용.

20) 현종호, 『조선국어고전시가사연구』,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84, 114~116면.

예술의 목적에 충실한 것도 장점이자 향가연구에 또 다른 지평을 연다.

하지만, 문학을 단순히 토대의 기계론적 반영으로 보는 이 비평은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는 맑시즘의 관점에서 보아도 이의 왜곡이다. 엥겔스는 “경제적 요인이 유일한 결정적 요인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주장을 아무 의미도 없고 추상적이며 엉터리없는 공담으로 만드는 것이다. 상부구조의 각종 요인이 … 역사적 투쟁 과정에 영향을 주며, 또 많은 경우에 주로는 그 투쟁의 형태를 규정한다. 이 모든 요인은 서로 작용하며 이 상호 작용 가운데서 결국 경제적 운동은 무한히 많은 우연성을 통하여 필연적인 것으로서 자기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sup>21)</sup> 둘째, 근본적으로 이 비평은 문학의 자율적인 면을 무시했고 예술과 문학의 자율성 자체가 사회적이고 기존 체제에 부정적일 수 있음을 간과하였다. <풍요>의 서러움은 인간과 삶이 무상함을 깨달은 데서 오는 것을 노래한 것일 수 있으며, 마지막 구는 절을 짓는 일을 돕는 공덕을 닦아 이에서 벗어나 영원한 삶을 희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학은 본래, 사회와 역사를 떠나 자율적인 부분이 있으며 이 자율성과 사회적 성격사이의 긴장으로 인해 작품의 자율성 자체가 사회적 성격을 띠게 되고, 작품의 사회적 성격 스스로 자율적이 된다.”<sup>22)</sup> “진실의 내용은 매개됨으로써 사회적 내용을 초월한다. 예술은 그 자체로 지식의 형식이기 때문에 리얼리티를 함유한다.”<sup>23)</sup>

앞으로 맑스주의 비평이라면 물질 토대인 작가와 향유층의 계급, 생산력과 생산관계 등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들 계급의 계급의식과 사회현

21) F. 엥겔스, “엥겔스로부터 J. 블로흐에게,” 소련 마르크스·레닌주의 연구소, 『맑스엥겔스 선집Ⅱ』, 백의, 1989, 569~570면.

22) Lambert Zuidervaart, “The Social Significance of Autonomous Art: Adorno and Bürger,” *The Journal of Aesthetic and Art Criticism*, vol.48: no.1, 1990, p. 64.

23) T. W. Adorno, tr. C. Lenhardt, *Aesthetic Theor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4, pp. 383-384.

실, 양반과 서민간 계급갈등, 생산력과 생산관계간의 모순 등 대립물의 투쟁과 그 지양으로서 문학의 반영문제, 사회적 내용과 미학형식과의 관계를 '변증법적으로' 종합하여야 한다. "상부구조로서의 예술이 토대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며 여타 상부구조(이데올로기, 법, 정치, 헤게모니 등)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토대-상부구조의 결정론적 축보다 여타 상부구조와 상관관계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술작품의 분석 또한 토대에 영향을 받는 부분과 자율적인 부분을 분절하고 이 두 영역간의 변증법적 상호관계, 텍스트의 내재적인 요인과 텍스트외적 배경과를 '매개'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텍스트와 여타 상부구조와의 관련에 대한 변증법적 분석 등이 뒤따라야 총체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sup>24)</sup>

물론 필자가 과문한 탓이고 아직 북한 학계의 향가 연구의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할 수 없지만, 기계론적 맑시즘을 극복한 표현론적 맑시즘이나 구조론적 맑시즘으로 향가를 분석한 것은 남한에도 북한에도 보이지 않는다.

## 5. 민속학 연구의 공과 한계

"민속학은 인간 사회에서 민간 전승을 통하여 전해 내려오는 여러 장르의 민속 문화와 민간의 관습 등의 형태와 내용, 변천을 연구하여 이를 통하여 민족문화를 밝히고자 하는 과학이다."<sup>25)</sup> 민속학은 현장을 찾아 민간 전승과 관습을 수집하고 관련 아카이브와 접촉하여 관련 자료와 기록물을 찾고 이를 전자와 종합하여 분류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한 후에 민족문화의 관점에서 해석

24) 이도흠, 「元曉의 和諍의 틀에서 본 문학텍스트에서 現實의 反映과 屈折의 문제」, 『韓國學論集』31輯,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97년 10월, 89면.

25) 최상수, 「우리들의 보고: 민속학회」, 〈조선일보〉, 1956년 6월 16일.; 남근우, 「한국 '역사민속학의 방법론 재고」, 『한국민속학』51집, 한국민속학회, 2010년, 40면 재인용. 이를 참고하되, 필자가 약간 수정하여 정의함.

을 행한다.<sup>26)</sup> 향가의 민속학 연구는 『삼국유사』의 관련 기록문에 나타난 서사나 행위를 민속학의 연구 성과에 비추어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處容은 용이면서 인간이라는 양면성을 가진다. … 처용의 양면성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는 처용을 巫로 보았을 때 가능하다. 즉, 처용은 巫이면서 동시에 巫가 몸주(主神)로 모시는 神이라는 것이다. … 처용은 신을 모시고 있으니 降神巫이며 처용의 主神은 동해용신이라는 것이다. … 가무를 함으로써 疫神을 쫓으려는 처용의 행위는 바로 무당의 治病굿인 것이다. … 처용의 形容을 門에 붙임으로써 역신의 침입을 막았다는 것은 畫形自體의 呪能을 인정한 것이다.”<sup>27)</sup>

“조선 민속학의 학문적 정립은 1932년 조선 민속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지식 보급을 목표로 설립된 조선민속학회의 결성에서 비롯되었다.”<sup>28)</sup> 최남선과 손진태에 의해 민속학이 처음으로 정립되었고, 장주근, 서대석, 김열규, 임재해 등이 향가를 민속학적으로 해석하였다. 위의 논문을 통하여 우리는 처용이 신적인 행위와 인간의 행위를 모두 행하는 문제를 해명하고, 역신의 의미, 문첩(門帖)의 동인을 파악하고 노래의 내용을 주술적인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당대 사회가 주술성이 개인의 사고와 행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세계관도 불교와 샤머니즘이 뒤섞인 무불(巫佛) 혼용시대이기에, 삼국유사 소재 향가 14수에는 관련 기록이 기술되어 있고 이의 상당 부분이 역사와 설화, 미메시스와 판타지, 불교와 샤머니즘이 뒤섞인 것이기에 후자의 텍스트의 해석에는 민속학의 방법론을 빌려 해석할 때 그 의미가 드러나는 점이 많다.

26) Richard M. Dorson (ed.), *Folklore and Folklife: An Introduc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2, p. 6.

27) 서대석, 「處容歌의 巫俗的 考察」, 『韓國學論集』제2집, 계명대한국학연구소, 1980, 274~279면.

28) 남근우, 『조선민속학과 식민주의』, 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161면.

하지만, 이 방법론은 전자의 부분, 곧 역사와 미메시스, 불교의 텍스트까지도 민속학적으로 해석하거나 이 부분의 해석을 공란으로 남겨두는 문제가 있다. 일본에서 비단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친 백제인이 사후에 비단신으로 모셔지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선진문명을 전수한 이가 신격화한 사례가 많다. 처용랑 망해사 조의 서사는 실제 역사적 사실을 사후에 신격화면서 주술성이 결합된 것이며, 불교 전래 이후에는 불교적 굴절도 발생한 적층서사다.<sup>29)</sup> 무엇보다 이 방법론은 노래나 관련 기록에 샤머니즘이나 주술성이 없을 경우 적용할 수 없거니와 적용한다 하더라도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 6. 구조주의 연구의 공과 한계

구조주의에 따르면, 문화란 주체들이 아니라 구조의 산물이다. 자연, 더 나아가 시적 대상과 시적 주체는 구조를 매개로 관계맺거나 미적체험을 한다. 구조란 외적인 구성만이 아니라 전체를 이루는 부분이 배열되고 조직되고 기능을 하면서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 실제 요소들의 집합이다. 구조주의는 주체중심주의와 인간중심주의를 성찰하면서 주체와 인간의 안과 중심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 이를 규정하는 구조, 외형과 구성이 아니라 각 구조 사이의 기능과 연관, 차이에 주목한다. 구조주의 비평가는 구조를 이루는 음소, 신화소, 음식소에서 시작하여 텍스트의 내적 구조, 통사론적 구조, 의미론적 구조, 무의식적 구조 등의 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담론, 세계관이나 문화 구조 등과 연관하여 해석한다.

29) “처용랑 망해사조의 설화를 구조 분석한 것과 역사적 사실을 결합할 경우 ㉠ 경상도 울주 지방에 성행하던 개운포의 지명 유래설화가 ㉡ 첨문민속의 벽사신 처용의 신성전설과 결합, 개운포의 벽사신 설화로 전이하고 ㉢ 이는 다시 불교 전래 이후 불교적 외피를 입고 망해사 연기설화로 변모한다. ㉣ 여기에 현강왕대의 역사적 사실이 더해져 이 설화는 처용랑 망해사 조의 설화로 변개한다.”[이도흠, 「처용가의 和諍記號學的 研究」, 『韓國學論集』제24집, 1994년 2월.]



“언어에는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sup>30)</sup> ‘나무’가 스스로 본질이나 의미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풀’과의 관계, 구조, 차이를 통하여 ‘목질의 줄기를 가진 여러해살이의 식물’이란 의미를 드러내듯, 체계 속의 각 기호는 다른 기호들과의 차이 하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의미는 기호 안에 내재하지 않는다. 의미는 사물의 본질이 드러난 것도, 주체의 경험이나 이해에 바탕을 둔 것도 아니다. 의미는 차이나 관계에 따라 드러난, 공유된 의미작용 체계의 산물이다. 때문에 구조주의와 기호학 비평은 기호, 텍스트, 담론 상호간의 관계에 주목한다. 텍스트의 내적 구조를 여러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들 구조와 관계를 바탕으로 의미를 해석한다. 구조주의 비평가들은 역사가 아니라 의미의 결정을 문학연구의 목표로 하여 이것을 체계와 구조에 관련시키면서 작품을 분석한다. “즉 작품을 ‘원인’ 대 ‘결과’가 아니라 ‘원인’ 대 ‘관계’, 사물을 표상하는 기표로서 해독한다.”<sup>31)</sup> 기호학 비평은 구조주의 비평의 원리를 상당수 차용하되, 기호와 현상이 빚어내는 역동적 작용인 세미오시스(semiosis)에 주목한다. 의미의 기호학은 기표와 기의, 은유와 환유, 계열체와 결합체, 행위소 모형 등을 이용하여 텍스트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의미를 밝히며, 소통의 기호학은 발신자와 수신자를 중심으로 소통에 관여하는 맥락과 통로, 잡음 등을 살피며 메시지가 전달되고 해독되는 과정과 원리를 해명한다.

이사라는 향가가 한 텍스트로서 온전한 구조체를 지닌 하나의 시가라는 전제 아래 <찬가괴랑가>에 대해 기호학적인 분석을 하였다.

“<찬가괴랑가>는 거의 완벽한 짜임새를 가진 天·川·地의 우주적 삼분체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각각 층위의 의미작용이 독립적인 체계로 *paradigme*을 형성하며, 또한 상호보완적인 체계로 天이 투영된 川,

30) Ferdinand de Saussure, (tr.) Wade Baskin,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1959, p. 120.

31) Roland Barthes, (tr.) Richard Howard, *On Racine*, New York: Hill and Wang, 1964, p. 163.

天이 전제된 地의 기능 층위라는 의미체계를 파악하게 되었다. 이로써 <찬기과량가>가 현세에는 없는 花郎長인 耆婆郎이라는 인물의 인품과 정신에 대한 話者의 강렬한 추앙으로 인하여, 현세의 地의 軸에 수동적 자세로 단절된 자이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기과량이 있는 天의 軸으로의 능동적인 지향성이 川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이 가요는 합일의 정신을 추구한 신라문학의 기본구조와 일치하고 있음을 보았다.”<sup>32)</sup>

위의 연구를 통하여 그동안 다른 방법론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하늘과 넷물과 땅의 우주적 삼분체의 구조와 그 구조 사이의 상호관계, 그에 따른 의미체계가 드러났다. 이처럼 구조주의 비평은 텍스트의 심층구조를 캐내고 그 구조 사이의 연관관계를 분석하면서 의미체계를 드러낸다. 둘째, 주체중심주의와 인간중심주의에 입각한 근대적 비평방식을 탈피하여 향가 텍스트에 내재한 구조와 차이를 밝힌다. 향가가 지시하고 있는 사물과 향가가 구성하고 있는 세계에 대해 그 본질이 아니라 구조, 기능, 차이를 통하여 분석하는 지평을 연다. 셋째, 기표와 기의, 은유와 환유, 계열체와 결합체, 행위소 모형(actantial model) 등을 활용하여 향가 텍스트를 언어기호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의미론의 차원과 담론의 층위에서 해석하는 길을 제시한다.

하지만, 구조주의의 가장 큰 한계는 비역사성과 공시성에 기울어 역사와 통시성을 상실하는 데 있다. “역사개념의 문제는 리얼리티의 문제가 아니라 모델의 문제이며 실제의 역사는 직접 닿을 수 없는 일종의 물자체(物自體)로서 정신의 외부에 있게 되고 시간은 불가지의 것이 된다. 여기에서는 모든 역사의 시간이 단순한 연속의 시간이며 내용은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공허한 형태일 뿐이다.”<sup>33)</sup> 향가는 고대 신라인에서 고려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32) 이사라, 「讚耆婆郎歌의 構造的 接近」, 『국어국문학』92집, 국어국문학회, 1984, 152~153면.

33) 프레드릭 제임슨, 윤지관 옮김, 『언어의 감옥』, 까치, 1990, 156~166면.

사람들이 향유한 역사적 장르이며, 향가 해석의 단서가 되는 삼국유사의 관련 기록은 실제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 구조주의 비평은 이런 부분의 해석을 놓친다. 둘째, 구조주의는 텍스트를 변하지 않는, 심지어는 죽어있는 고정되고 폐쇄된 틀로 다룬다. 이는 텍스트의 가변성과 통시성을 무시하며 독자 또한 고정되고 폐쇄적이며 주관이나 감정이 없는 분석자로 간주한다. 이 비평은 “현실의 대상을 괄호 안에 묶는 순간에 인간 주체마저 괄호 안에 묶어버렸다.”<sup>34)</sup> 무엇보다도 이 비평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텍스트의 내재성에 있다. 모든 문화, 시대, 계급이나 집단이 그 나름의 해석양식을 갖고 있으며, 텍스트의 내재적 구조와 의미는 텍스트를 분석하는 도구, 텍스트가 수용되는 맥락과 세계관, 텍스트가 사회적으로 실현되는 양상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

## 7. 정신분석학 연구의 공과 한계

문학은 작가와 향유층의 정신과 무의식, 욕망이 투영된 텍스트다. 문학은 독자에게도 감동을 주고 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욕망에도 관여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20세기까지 문학과 마음을 관련시켜 해석하는 단초들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프로이트 이후 인간의 의식의 저 편에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 꿈 텍스트를 분석하여 인간의 무의식을 해명하듯 정신분석학의 원리와 방법을 문학 텍스트의 해석에 응용하면서 정신분석학 비평이 시작되었다.

“문명은 인류를 무대로, 에로스와 죽음, 삶의 본능과 파괴 본능 사이의 투쟁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 투쟁은 모든 생명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따라서 문명 발달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sup>35)</sup> 문학 또한 삶과 창조의 충동인 에로스(eros)와 죽음과 파괴의 충동인

34) 테리 이글턴, 김명환·정남영·장남수 공역, 『문학이론입문』, 창비사, 1988, 141면.

타나토스(thanatos)가 공존하며, 이드와 에고와 초자아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문명의 소산이다. 쾌락원리(pleasure principle)와 현실원리(reality principle)가 서로 맞물리면서 인간의 욕망은 압축(condensation)되거나 치환(displacement)되어 꿈과 텍스트, 실책행위로 나타난다. 이에 정신분석학 비평은 압축(은유)와 치환(환유)를 매개로 문학 텍스트에 잠재한 작가, 인물, 시적화자, 독자의 무의식을 분석하고 해석한다.

라캉은 후기 구조주의의 입장에서 기호학과 프로이트를 결합하여 정신분석학을 재해석했다. 선량하고 평범한 회사원이 앵무새를 보자마자 잔인하게 죽인 것은 군사독재정권 시대에 자신을 고문한 경관의 별명이 ‘앵무새’였기 때문이다. 그를 죽이려는 욕동(drive)이 상징계(the symbolic)에서 인접성의 유추인 환유(metonymy)로 치환(displacement)되었기 때문이다. 실재계(the real)에서 이 회사원은 주체로서 고문 경관을 살해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는 법과 질서로 짜여 있는 현실원리의 검열을 받는다. 고문 경관의 살해 욕동은 억압되고 욕망(desire)은 환유를 통해 이를 앵무새 살해로 치환하여 재현하는 것이다. 이처럼 채워지지 않는 실재계의 욕동은 거세와 검열에 의해 은유나 환유로 대체되어 상징계의 욕망으로 재현(representation)되면서 리비도의 에너지를 누그러뜨린다. 그러니 “욕망은 방어이다. 주이상스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서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다”<sup>35)</sup> 욕망한다는 것은 리비도, 또는 욕동을 억제하는 것을 뜻한다. 언어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욕동은 포기되고, 우리는 상징으로 이루어진 대타자를 욕망하지만 이 또한 충족되지 못한다. 상징과 도덕이 있는 곳에 결여가 자리하며, 이에 욕망은 늘 채워지지 못한 채 불만 상태에 있게 된다. 이처럼 상징은 처음에 사물의 살해로 그 자신을 드러내며, 이 죽음은 주체의 욕망을 무한히 영속화하는 것으로 귀결된다.<sup>37)</sup>

35)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석희 옮김,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1997, 313면.

36) Jacques Lacan, (tr.) Bruce Fink, *Écrit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6, p. 699.

그러기에 우리는 언어기호를 사용하는 한 사물 그 자체에 다다를 수 없으며, 주체의 욕망을 채울 수도 없다. 언어는 우리가 사물 그 자체나 완성에 이르는 것을 방해한다. 이처럼 인간의 욕동(drive)은 상징계를 넘어서서 실재계(the real)를 지향하지만 실재계에 다다를 수 없기에 욕동은 상징으로 표현되고 욕망의 대상으로 치환된다. 이에 라캉을 응용한 정신분석학 비평은 텍스트에서 상상계, 실재계, 상징계를 분석하고 주체와 타자, 욕망 사이의 관계를 천착하면서 문학 텍스트와 인물, 시적 화자에 잠재된 욕망과 무의식, 그것의 의미들을 해석한다.

신은경은 라캉의 이론을 바탕으로 주체가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라 형성되어 가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처용 설화에 나타난 주체로서 처용의 의식과 무의식, 주체의식(subjectivity)을 분석하였다.

“처용의 물밖 세계로의 진입은,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의 분리, 즉 아이가 이 세상에 ‘탄생’하는 것에 대응된다. 설화의 첫째, 둘째 단락은 동해용이 자신의 욕망을 아들인 처용을 통해 대리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역자 모델에서, 임무인 ‘객체’를 탐색코자 하는 ‘주체’로서의 처용은 아버지의 욕망에 예속되어 있으나,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미분화된 자아의 단계, 주체로서의 기능이 부여되기 이전의 자아의 단계인 상상계적 모습을 보여준다. ... 이러한 상태에서 ‘상징계’로의 진입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역신과 아내의 부정을 목격하게 되는 사건이다. ... (처용가) 노래에서 우리는 ‘상상계’로부터 차별화와 질서의 세계인 ‘상징계’로 진입한 순간의 처용의 의식세계를 감지할 수 있다. ‘내 것’과 ‘네 것’의 구별이 생기고, ‘빼앗고’ ‘빼앗기는’ 행위의 의미작용을 구분하기 시작한 것이다. ‘발화’한다는 것, 자기의 목소리를 ‘표명’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곧 주체의 탄생을 의미한다. 개별성을 획득한 주체로서의 처용은 자아와 타자를 구분하는 타자의 식이 형성되고 비로소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사회적 자아로 굴절된다. 이 노래는 주체의 탄생을 알리는 일종의 선언문인 셈이다. ... 물밖 세계로의 탄생은 신성공간으로부터의 분리요, 신성성의 상실을 의미한다. ... 이 근원적 결여를 충족시키는 궁극적 욕망을 실현키 위해서는 그동안 욕망의 대상으로 오인하고

---

37) *ibid.*, p. 262. 참고함.

있었던 ‘허상’으로서의 아내의 ‘상실’이 불가피하지만, 도덕률에 위배되는 사회적 검열을 피하고 우회하는 수단으로 아내를 ‘빼앗겼다’고 하는 위장의 태도를 취한 것이라고 본다. 이것이 근원적 결여-물 밖 세계로 분리되어 나오면서 상실한 신성성-를 회복하고자 한 처용의 무의식의 의미작용, 욕망의 드라마의 전모이다.”<sup>38)</sup>

위의 논문은 그동안 다른 방법론으로는 알 수 없었던 처용의 내면 심리, 무의식의 세계, 욕망을 투명하게 드러내 보여준다. 이미 프로이트가 『햄릿』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우유부단하게 처신하는 원인에 대해 외디푸스 콤플렉스 등과 관련하여 명쾌하게 분석한 것처럼, 이 비평은 텍스트나 작중인물/시적 화자의 욕망과 무의식, 내면의 심층세계를 명징하게 파헤치고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삼국유사』와 향가의 작중인물이나 시적 화자의 무의식과 욕망을 규명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다.

둘째, 라캉식의 정신분석학 비평은 정신분석학으로부터 장미꽃을 꺾는 꿈을 자주 꾸 이유가 그 마을의 귀족부인과 사랑을 나누려는 욕동이 상징계에서 은유(장미=귀족부인, 여성의 성기)와 환유(꽃밭→사랑의 장소)로 치환한 것을 알고서 얼굴을 붉히는 청년처럼, 텍스트를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로 분절하고, 은유와 환유를 매개로 타자와 관계 속에서 주체의 욕망과 욕동, 무의식을 해석한다. 아울러, 실재계를 지향하지만 이에 다다르지 못하고 욕망하지만 타자를 욕망하기에 더욱 소외를 절감하는 인간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고 순수욕망을 구현하는 길을 제시한다.

하지만, 정신분석학 비평은 서정 양식으로서 향가를 무시한 연구라고 단정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연구는 향가 노래 텍스트와 관련 설화를 내러티브화할 때만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자연히 문학성을 무시하고 작가, 혹은 작중인물/시적 화자의 심리만을 분석하는 데 치중하게 한다. 위의 논문에서 처용

38) 신은경, 「處容歌에 대한 정신분석적 검토: 라캉의 ‘주체의식(Subjectivity)’ 이론을 중심으로」, 『韓國詩歌研究』제1집, 한국시가학회, 1997, 281~287면.

가의 시학적 분석은 없다. 둘째, 물론 위의 논문에서는 작가와 시적 화자가 처용으로 일치하지만, 정신분석학 비평은 작가의 심리와 작중 인물/시적 화자의 심리를 동일화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셋째, 정신분석학 비평은 자칫 꿈해몽처럼 은유와 환유를 매개로 한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으로 그칠 수 있다. 위의 논문에서 처용의 욕망과 무의식은 은유와 환유를 매개로 한 해석 일 뿐이지 이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 넷째, 정치, 사회 등 작품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이나 사회문화적 맥락을 무시하고 작가나 작중 인물/시적 화자의 심리에만 치중할 수 있다. 위의 논문에서 현강왕대의 사회상과 관련한 분석이나 해석이 없다. 이에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이 행한 작업처럼, 라캉에 헤겔이나 맑스를 결합하고 시학적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 8. 和諍詩學의 연구

필자는 우리의 텍스트를 우리의 패러다임으로 읽고자, 시 텍스트를 시학적으로 분석하여 낯설게한 것, 다의적인 의미, 문학성을 찾아내면서도 사회문화적 맥락과 종합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진정성을 지향하는 해석을 하고자, 원효의 화쟁사상을 통하여 형식주의와 맑스주의 비평을 종합한 화쟁시학 이론을 만들었고 이를 향가 연구에 적용하였다.<sup>39)</sup> 자화자찬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미 여러 수의 향가 연구에 적용한 것을 무시할 수도 없기에, 평가는 후학으로 미루되, 이론의 내용과 이를 적용한 향가 연구의 핵심만 간략히 소개한다.

39) 물론 향가만이 아니라 속요, 시조, 소설, 춤 등에도 적용하였으며, 하이쿠와 한시에도 적용하여, 2005년 일본 동경대에서 열린 '일한비교문학국제학술대회'에서 「마츠오 바쇼의 하이쿠의 화쟁시학적 연구(松尾芭蕉の俳句に對する和諍詩學的研究)」, 2011년 국립대만대학교 중문계 초청세미나에서 「두보시의 화쟁시학-춘망을 중심으로(杜甫詩的和諍詩學-以〈春望〉爲中心)」을 발표하여 호평을 받았다.

① 서양의 실체론적 사고와 동일성의 사유를 해체하고 화쟁을 통하여 ‘관계의 사유’를 하고 ‘차이의 읽기’를 행하여 텍스트와 맥락, 텍스트와 이데올로기, 내용과 형식, 작자와 독자, 부재-텍스트와 현전-텍스트 등에 대해 이분법을 넘어서서 대대(待對)의 논리로 읽는다.<sup>40)</sup> ② 상체용(相體用)과 은유와 환유의 원리를 결합하여 세계의 인식과 그 의미작용을 종합하고 이로 시 텍스트에 나타난 은유와 환유를 해석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體)는 용(用)을 통해 드러나고, 용(用)은 상(相)을 만들며 상은 체를 품는다는 점이다. 차이를 만들면서 영겁의 순환을 한다. ③ (향가와 삼국유사) 텍스트를 현실을 거울처럼 반영한 반영상(反映相)과 프리즘이 한 줄기 빛을 무지개로 바꾸듯 굴절시킨 굴절상(屈折相)으로 분절하고, 반영상은 맑스주의처럼 역사, 사회, 정치 등의 관련 맥락을 종합하여 구성한 현실과 텍스트를 종합하여 해석하고 굴절상은 시학적/기호학적으로 심층구조와 의미체계를 분석하되, 텍스트에 담긴 세계를 화엄철학의 사법계로 나누어 분절한 후 내적 분석을 한다. 반영상에는 현상계와 원리계가 포개진다. 굴절상에는 진자계와 승화계가 주름처럼 겹쳐있는데, 진자계는 시적자아가 지향의식에 따라 현실과 욕망, 당위와 존재, 절대와 상대, 현상과 본질, 역사적 존재와 실존적 존재 사이를 시계의 진자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경계다. 승화계는 모든 대립과 갈등을 승화하여 이룩한 총체성의 세계다. ④ 텍스트는 타자의 수많은 흔적이 중첩되고 다른 텍스트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변형되는 열린 체계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의미작용 체계에 적용하였던 상체용(相體用)의 범주를 ‘품, 짓, 몸, 참’으로

40) 대대란 파란 태극 안에 빨간 동그라미가 있고 그 반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인 것처럼, 팔을 펴는 양의 행위를 할 때 구부리려는 음이 작용하고, 반대로 팔을 구부릴 때 펴려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팔을 구부리고 펴는 동작을 반복할 수 있는 것처럼, 서로 대립적인 것이 상대방을 자신 안에 품으면서 상반상성(相反相成)하는 것을 뜻한다. 대대는 한국인의 독특한 사유 및 행위 구조이자 미학적 심층형식이다. 한국인이 뜨거운 국을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하는 것은 뜨거움과 차가움이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뜨거움 때문에 더욱 차가움의 맛이 드러나고 차가움 때문에 뜨거운 맛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한국인에게 최고의 맛은 ‘뜨거운 차가움’이며, 삶의 최고 경지는 ‘죽이는 삶’이다.



범주화하여 형식주의와 역사주의, 맑스주의 사회학과 구조적 시학, 해석학과 수용미학, 공시대와 통시대를 종합하며 해석한다. 텍스트의 몸은 텍스트의 짓을 통하여 드러나며, 텍스트의 짓은 텍스트의 품을 형성하며, 텍스트의 품은 다시 몸을 품는다. ⑤ 세계의 부조리에 대한 집단무의식적 대응양식과 집단적 믿음의 체계, 은유와 환유의 바탕을 형성하는 의미체계가 있는데 이를 ‘세계관’으로 명명한다. 세계관 안에서 주체가 코드를 해독하여 의미작용을 하는 것을 분석하되, 이데올로기, 의식, 태도, 발신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지시적 가치, 문맥적 가치, 표현적 가치, 사회역사적 가치, 존재론적 가치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텍스트의 진정한 체(體)는 드러날수록 감춘다는 전제 아래 기존의 코드 체계를 해체하는 텍스트의 숨은 의미, 텍스트의 참을 드러낸다. ⑥ 화쟁기호학 소통모형을 적용하여 지금까지의 작업을 종합하며, 발신자인 작자와 여러 수신자 사이의 소통, 이 소통에 관여하며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사회문화적 맥락을 결합하며 해석한다.<sup>41)</sup>

특히, 향가연구에서는 먼저 오쿠라에서 흥기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어학자의 어석(語釋)을 경우의 수로 놓고 외삽법을 통하여 어학적, 통사론, 의미론적으로 오류인 것을 버리고 남은 어석을 재구성하는 것을 1차 작업을 하고, 삼국유사의 관련 기록을 기호학적으로 분석한 후에 당대 세계관 아래 실증을 바탕으로 역사, 정치, 사회문화, 사상을 재구성하며 기능과 의미를 해석하고, 향가 텍스트의 내적 분석을 하고, 이어서 앞의 작업에서 구성한 맥락과 향가 텍스트를 종합하여 해석하고, 이를 화쟁기호학 소통 모형에 넣어 해석하였다.

향가 텍스트와 삼국유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당대 정치, 사회, 문화, 사상 등을 종합하여 당대의 사회와 문화를 재구성하면서 해석하였지만 향가의 문학적성을 드러내는 데 주력하였다. 지면관계상 기존 연구과 달리 새롭게 밝힌 부분을, 문학적 의미는 생략하고서 핵심사항 하나씩만 짧게 나열한다.

고유의 신앙인 풍류도와 불교가 융합하여 ‘지금 여기에서’ 제재초복(除災

41) 이도흠, 『화쟁기호학, 이론과 실제』, 한양대학교출판부, 1999, 173~220면. 요약함.

招福)을 통하여 세계와 조화를 모색하고 행복을 소망하였던 풍류만다라 시대에서 생성되고 향유된 향가는 <혜성가>와 <풍요>다. <혜성가>는 “금강산으로 산행을 가려던 화랑도들이 왜침의 징조를 알리는 혜성의 출현이 있자 왜구와 맞서는 현실적 대응을 하면서 더불어 문화적 대응으로 행한 의례로서 읍천사가 부른 노래다. 초구와 승구는 ‘징후: 해석: 결과’의 구조이며, 동해 안에 나타나는 신기루가 왜구의 선단이 아니라 신라를 지키는 건달과성의 의미를 갖듯, 혜성 또한 흉조가 아니라 화랑의 앞길을 밝히는 ‘길쓸별’이라고 기호를 달리 표명하여 천상계(혜성출현)와 지상계(왜병의 침입)의 혼란을 무화하고 질서와 조화로 전환한 노래”다.<sup>42)</sup> <풍요>는 “원래 영묘사를 지을 때 부역에 동원된 양인(良人)들이 노동과 신분상의 고통과 서러움을 토로한 노동요이지만, 이 서러움을 불사를 하는 공덕을 통해 수복멸죄(修福滅罪)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되는 노래다.”<sup>43)</sup>

화엄을 중심으로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염원하였던 화엄정토만다라 시대에서 <원왕생가>는 “서방정토의 중개자이자 아미타불의 광명을 뜻하는 달에게 정토왕생을 염원한 노래이며, 관련 서사는 당시 신라 양인이 교조적 수행자(광덕-달달박박-의상)보다 개방적 수행자(엄장-노힐부득-원효)를 더 선호한 계열의 설화다.”<sup>44)</sup> <죽지랑가>는 “왕권-화랑 연합세력과 지역의 귀족세력이 대립하던 효소왕(孝昭王) 대에 득오가 관례에 따라 모량리의 익선(益宣)의 밑에서 부산성의 창직(倉直)의 일을 수행하며 갖은 고초를 겪는 상황에서 이런 비극적 현실에 대하여 통렬한 슬픔을 표출하는 동시에 구원자로서 죽지랑과 만남을 고대하며 그의 이상과 실천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빚어지는 슬픔을 승화한 노래다.”<sup>45)</sup> <헌화가>는 “원래

42) 이도흠, 「혜성가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 논문, 1984.

43) 이도흠, 「풍요의 문화사회학적 시학」, 『한국학논집』 21/22합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92.

44) 이도흠, 「원왕생가의 문화사회학적 시학」, 『畿甸語文學』 第7輯, 水原大 國語國文學會, 1992년 12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강릉 태수의 수로부인과 마을의 노옹 사이에서 꽃을 매개로 이루어진 신분을 초월한 사랑 노래였지만, 성덕왕(聖德王) 대에 오대산에 화엄만다라를 조영하면서 부처가 그 성소를 장엄하러 가는 이에게 천화(天花)를 내리는 것이자 이를 매개로 지상과 절벽 위의 성스런 세계가 미(美)의 총화와 원융(圓融)을 이루는 것으로 해석되었다.”<sup>46)</sup>

〈도술가〉에서 “두 해의 출현[二日竝現]은 경덕왕 19년 4월에 시중 염상(廉相)이 왕위 계승을 놓고 왕권에 도전한 것을 약호화한 상징체계이며, 경덕왕이 이에 대한 문화적 대응으로 행한 실천의례가 산화공덕이며, 도술가는 월명사가 이 의례에서 미륵보살의 힘을 빌려 다시 질서를 회복하자는 소망을 담아 산화가 대신에 부른 노래다.”<sup>47)</sup> 〈안민가〉는 “『논어』만이 아니라 『인왕경』 등 불교경전과 노래의 내용이 유사하여 유교를 포용한 불교의 안민호국 사상을 반영한 것이며, 노래 전체는 백성, 신하, 임금의 별(別)이 나라인 총(總)과 상즉상입(相卽相入)한다는 화엄연기론을 구조화한 것이다.”<sup>48)</sup> 〈제망매가〉는 “‘예 있음때’에서 ‘예’는 중유(中有)를 가리키며, 죽음과 인간의 유한성, 무상에 대한 실존적 인식을 나뉘임과 가지의 은유와 ‘처림’의 직유를 통하여 토로하는 동시에 삶과 죽음, 만남과 이별, 이성과 정토 사이의 대립을 길과 도(道)와 계절, 중유의 매개를 통하여 화쟁의 관계로 승화하면서 미타정토에서 왕생을 통한 영원과 해탈을 지향한 노래다.”<sup>49)</sup> 〈찬기과랑가〉는 “노래 텍스트 자체는 충담사가 기과랑이 부재한 데서 오늘 슬픔을 이슬, 달, 냇

45) 이도흠, 「모죽지랑가의 創作背景과 受容意味」, 『韓國詩歌研究』 第3輯, 韓國詩歌學會, 1998년 6월.

46) 이도흠, 「헌화가의 문화사회학적 시학」, 『한양어문』 제10집, 한양대 한양어문연구회, 1992.

47) 이도흠, 「도술가와 화엄사상」, 『한국학논집』, 제14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88/이도흠, 「도술가의 화쟁시학적 연구」, 『고전문학연구』 8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3.

48) 이도흠, 「안민가의 화쟁시학」, 『한국학논집』 제23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93.

49) 이도흠, 「제망매가의 和諍記號學的 研究」, 『한양어문연구』 제11집, 한양대 한양어문연구회, 1993.

물 등의 무상한 대상에 비추어 노래하는 동시에 잣나무와 같은 그의 뜻을 지향하는 행위로 승화하겠다는 서정가요이지만, 경덕왕이 전제 왕권 강화를 위하여 장자 세습을 하려는 맥락에서 이와 유사한 『장아함경』의 빈비사라왕 설화와 상호텍스트성을 가지며 아버지를 죽인 업보로 병을 얻은 아자세 왕을 구원한 기파(耆婆)를 기리는 노래로 해석되었다.”<sup>50)</sup> <도천수관음가>는 “부처님 앞에 선 한 중생으로서의 마음과 눈 먼 아이를 둔 한 어머니로서의 마음이 잘 교직(交織)되어 있다. 전자가 논리적이고 질서적이고 의례적이며 불교적인 어사와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후자는 감성적이고 비질서적, 탈의례적이며 샤머니즘적인 어사와 태도를 취하고 있다.”<sup>51)</sup>

선교혼용(禪敎混融) 시대에서 불리진 노래는 <처용가>다. 『삼국유사』의 ‘처용랑 망해사’ 조는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집단에 의해 구성된 적층설화다. <처용가>는 “벽사신 설화와 결합할 경우, 무격 처용이 역신을 쫓는 구나의례(驅難儀禮)로서 춤을 추며 부르던 노래이며, 망해사 연기설화와 결합하면 아내에 대한 집착을 초탈해 원용을 이룬 망해사 창건자 처용의 영웅을 나타내는 노래이며, 당대의 사회문화상과 연관하면 현강왕대의 타락상을 고발해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을 경계시키고자 하는 노래다.”<sup>52)</sup>

50) 이도흠, 「찬기파랑가의 새로운 語釋과 의미 해석」, 『文兼 全英雨 博士 華甲紀念 國語國文學論叢』, 1994년 11월.

51) 이도흠, 「新羅 鄉歌의 文化記號學的 研究 : 華嚴思想을 바탕으로」, 漢陽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1993.

52) 이도흠, 「처용가의 和諍記號學的 研究」, 『韓國學論集』 제24집, 1994년 2월. 지금까지 간단하게나마 필자의 논문을 약술한 것은 이 논문의 취지대로 화쟁시학의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를 나열하는 것과 아울러 이후의 향가 논문이나 신라사 논문에서 필자의 논의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인용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향가가 창작되고 향유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국문학자인데 신라 불교의 전문가로 활동할 정도로 신라에 관한 것이라면 역사, 정치, 철학, 비문, 발굴보고서 등 닥치는 대로 읽었으며 현장 답사도 수시로 갔다. 필자의 향가 논문은 어떤 때는 한 단락을 구성하기 위하여 100편 이상의 논문을 보고 소결에 이르고 그러면서도 문학적성을 잃지 않기 위하여 텍스트를 구조적, 기호학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분석한 것을 그 맥락과 종합하여 해석한 결과물이며 기존의 논문과 분명한 차이를 갖는 새로운 해석들

## 9. 문화사적 연구의 공과 한계

2000년대에 괄목할 만한 연구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서철원의 작업이다. 우선 그 작업의 극히 일부분이나마 살펴보자.

〈제망매가〉는 추상화와 형상화의 수사방식이 적절하게 조화된 텍스트이다. ... ‘존재론적 의문’을 “삶과 죽음의 길”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주목할 점이 있다. 바로 텍스트 안에서 서정주체[월명사]와 객체[누이]의 ‘거리’이다. 주체는 현재의 시·공간 속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객체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불안감 속에 다른 세계로 이동해야 한다. 불안의 원인은 머무르고 떠나는 차이, 혹은 다른 세계에 존재하게 된 것에만 있지 않다.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누이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은’ 것에 있다. 결정되지 않은 미래 때문에 “나는 간다”에서 어디로 가는지 표현되지 않았고, 그런 말조차 못했다고 하였다. 어디로 윤회할지 알 수 없는 이 ‘불완전한 상태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견딜 수 없어, 주체는 누이의 ‘미래’를 결정지으려 한다. 따라서 피안의 세계에서의 ‘죽음을 통한 열반’을 확신하며, 누이와 나를 ‘갈라놓았던[次盼伊遣], 삶과 죽음의 길, 윤회와 열반의 대칭은 다시 공존할 수 있게 된다. ... ‘생사로’가 불완전한 윤회의 길로서 작품의 동기에 해당한다면, ‘미타찰’은 완전한 열반의 공간으로서 작품의 결론에 해당한다. ... 〈제망매가〉의 서정주체는 “정토” 관념을 통해 자신이 몰랐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자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sup>53)</sup>

서철원은 위에서 예로 든 대로, 향가 본연의 서정성을 본질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서정주체’라는 개념을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문화사적 배경을 고찰하면서 향가를 해석하고 전승담에 등장하는 수신자와 관계 속에서 효용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sup>54)</sup> 이는 향가의 맥락을 알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종합하여 당대의 사회문화를 재구성하고 화쟁기호학 소통모형

---

이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에게 이것이 인용의 출처도 없이 자주 반복되고 있어 비애와 허탈감이 든다.

53) 서철원, 『향가의 역사와 문화사』, 지식과 교양, 2011, 228~237면.

54) 위의 책, 11~17면.

에서 향가의 향유에 관여한 발신자와 수신자와 관계망 속에서 여러 의미를 해석한 화쟁시학과 유사한 점이 있다. 하지만, 서정주체라는 개념을 내세워 서정성에 먼저 주목하여 이에 대한 감동을 매개로 전송담 속의 수신자가 향가의 시적 본질에 감동한 것을 바탕으로 행동, 혹은 인식의 변화, 전환을 이끌어내는 현실적, 효용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향가사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다. “서정성’이 작가의 의도 혹은 작가와 수신자의 교감과 결부된 특질이라면, ‘효용성’은 수신자가 텍스트를 이해·향유하는 방식과 상관관계를 지닌다.”<sup>55)</sup>라며 서정성과 감동을 중심으로 현실적, 심미적 효용성을 따지는 것 또한 온당하다.

다만, 크게 네 가지가 보완되면 더욱 훌륭한 연구가 될 듯하다. 문화사의 기반을 구성하면서도 서정주체에 주목하여 문학성을 놓치지 않은 것은 좋은 전략이지만, 향가 텍스트에 대해 구조적인 분석이 보태질 때 향가의 본질과 심층적인 서정성이 더 잘 드러날 것이다. 둘째, 물론 조선조와 달리 자료가 너무 부족한 한계가 있지만 이 한계 안에서 문화사의 기반을 총체적으로 재구성하려면 좀더 많은 연구와 답사가 필요하며 토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방적인 것에는 수정을 가해야 하지만,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 신라의 사회경제적 토대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부구조로서 문화를 재구성하고 그 기반 아래에서 서정주체가 세계의 부조리에 맞서서 서정성을 매개로 조화를 모색하고 수신자도 감동시켜 심미적이고 현실적인 효용을 발휘한 것을 따져야 한다. 셋째, 당대 문화를 올바르게 재구성하려면 세계관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계관은 세계의 부조리에 대한 집단무의식적 대응양식이자 은유와 환유 등을 매개로 집단적 의미망과 상호주관적 실재를 구성하는 바탕체계이기 때문이다.<sup>56)</sup> 넷째, 서정주체와 수신자의 관계와 의미를

55) 위의 책, 50면.

56) 상호주관적 실재는 상상에 의한 허구이지만 여러 사람의 의사소통에 따라 당대의 의미의 그물망에 의해 집단적 믿음의 체계에 의하여 실재하는 것처럼 작동하는 현존이다. 신라 시대에는 부처가 상호주관적 실재였고, 근대에서는 국가, 기업, 화폐가 상호주관적 실재다.

따지려면, 전승담에 대한 담론 차원의 연구와 소통기호학적 분석도 필요하다.

## 10. 향가 연구의 지향점-맺음말을 곁하여

이제 향가 연구 100년을 기점으로 향가연구는 새로운 길을 내야 한다. 종점에 설 때 출발점과 지나온 길이 명확하게 보인다. 우리의 근대는 혼성적이다. 자생적인 근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본을 매개로 수용되거나 강제된 유럽의 근대가 압도하였으며, 해방 이후 진행된 근대화는 압축적이고 물질중심적이어서 많은 파행과 모순을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향가에서는 해방 이후 많은 국학연구자들이 주체적인 연구를 수행하면서 식민지적 근대는 충분히 극복되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우리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향가에서 아직 미완으로 남은 부분의 근대성을 완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근대성을 성찰하는 탈근대성의 입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이다.

향가의 근대성을 완성하려면, 무엇보다도 역사·실증주의/맑스주의 비평과 형식주의/구조주의와 기호학 비평을 종합하여 내적 분석과 맥락적 해석, 반영상에 대한 해석과 굴절상에 대한 기호학적이고 미학적인 분석을 아울러 행하되 시학적 분석을 우선한다. 이렇게 하여 향가의 문학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맥락적 해석을 한다. 둘째, 아직까지는 필자와 양희철, 신재홍만이 어석과 문학적 해석을 종합하고 있는데, 시 텍스트는 토씨 하나로도 의미가 달라지므로 향찰의 어석을 한 연후에 이를 문학적 해석과 종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골드만의 문학사회학, 바흐찐의 사회학적 시학, 호지와 크레스의 사회기호학, 해체 비평, 문화연구론 등 아직 향가 연구에 적용되지 않은 방법론을 활용하면, 향가 연구는 새로운 해석들로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넷째, 향가의 은유지도를 작성하고 각 향가를 가로질러 자연관, 죽음의식, 미학관, 서정의 표출 방식 등을 추출하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다섯째, 계보학을

바탕으로 향가 연구를 범주화하고 향가 연구 논문 전편을 대상으로 한 연구사 기술이 필요하다.

2018년 오늘, 향가의 근대를 넘어서서 근대성의 모순을 성찰하면서 새롭게 지향해야 할 향가의 탈근대는 무엇일까. 동일성에서 차이로, 가부장주의에서 페미니즘으로, 오리엔탈리즘에서 탈식민론으로, 미메시스론에서 판타지론으로, 인간중심주의에서 생태론으로, 주체중심주의에서 해체와 타자성(alterity)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닐까. 무엇보다도 민족주의와 오리엔탈리즘, 근대적 국가관을 넘어서 동아시아의 지평에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럴 때 해체비평,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판타지론, 상호텍스트성, 생태론 등 탈근대적 방법론이나 이론은 근대적 향가 연구에 종언을 고하고 이를 넘어서는 해석의 지평을 열 것이다. 특히, “텍스트는 현전의 구조가 아니라 타자의 흔적과 모사이며, 다른 텍스트 구조의 반복과 변형에 의하여 꼴을 짓는 것”<sup>57)</sup>이기에, 향가와 삼국유사 텍스트를 동일성에서 벗어나 차이에 따라 읽고 다른 텍스트와 상호관련 속에서 타자의 흔적을 찾아내고 상호텍스트성의 주름을 풀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향가 텍스트와 『삼국유사』, 금석문 등 문자 텍스트만이 아니라 불상과 불탑, 발굴 유물 등 비문자 텍스트를 자료로 하여 문학, 철학, 기호학, 역사학, 인류학, 정치학, 미학, 문화론적 연구를 종합하여 향가가 향유되던 시대와 인간, 사회와 문화, 당대의 세계관과 미학관을 총체적으로 재구성하고 그 맥락 속에서 향가를 해석하는 연구 또한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다.

---

57) John Frow, “Intertextuality and Ontology,” Michael Worton and Judith Still(eds.), *Intertextuality—Theory and Practice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0, pp. 45~46.



참·고·문·헌

- 金岡秀友, 『佛敎의 國家觀』, 總和閣, 1978.
- 고운기, 「향가의 근대1-金澤庄三郎와 鮎貝房之進의 향가 해석이 이루어지기까지」, 『한국시가연구』, 한국시가학회, 25권, 2008년 11월, 5~36면.
- 남근우, 「한국 '역사민속학의 방법론 재고」, 『한국민속학』51집, 한국민속학회, 2010년, 33~60면.
- \_\_\_\_\_, 『조선민속학과 식민주의』, 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 서대석, 「處容歌의 巫俗的 考察」, 『韓國學論集』제2집, 계명대한국학연구소, 1980, 265~284면.
- 서철원, 『향가의 역사와 문화사』, 지식과 교양, 2011.
- 신은경, 「處容歌에 대한 정신분석적 검토: 라캉의 '주체의식(Subjectivity)' 이론을 중심으로」, 『韓國詩歌研究』제1집, 한국시가학회, 1997, 275~292면.
- 梁柱東, 『朝鮮古歌研究』, 博文書館, 1942.
- 이도흙, 「혜성가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 논문, 1984, 1~62면.
- \_\_\_\_\_, 「도술가와 화엄사상」, 『한국학논집』14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88, 93~129면.
- \_\_\_\_\_, 「원왕생가의 문화사회학적 시학」, 『기전어문학』제7집, 수원대 국어국문학회, 1992년 12월, 53~76면.
- \_\_\_\_\_, 「풍요의 문화사회학적 시학」, 『한국학논집』21/22합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92, 267~294면.
- \_\_\_\_\_, 「헌화가의 문화사회학적 시학」, 『한양어문』10집, 한양대 한양어문연구회, 1992, 79~109면.
- \_\_\_\_\_, 「안민가의 화쟁시학」, 『한국학논집』23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93, 43~90면.
- \_\_\_\_\_, 「제망매가의 화쟁기호학적 연구」, 『한양어문연구』제11집, 한양대 한양어문연구회, 1993, 163~178면.
- \_\_\_\_\_, 「도술가의 화쟁시학적 연구」, 『고전문학연구』8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3, 50~91면.

- \_\_\_\_\_, 「신라 향가의 문화기호학적 연구: 화염사상을 바탕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1~297면.
- \_\_\_\_\_, 「찬기과랑가의 새로운 어석과 의미 해석」, 『문점 전영우 박사 화갑기념 국어국문학논총』, 1994년 11월. 1~32면.
- \_\_\_\_\_, 「처용가의 화쟁기호학적 연구」, 『한국학논집』제24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94년 2월. 5~51면.
- \_\_\_\_\_, 「원효의 화쟁의 틀에서 본 문학텍스트에서 현실의 반영과 굴절의 문제」, 『한국학논집』제31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97년 10월. 69~98면.
- \_\_\_\_\_, 「모죽지랑가의 創作背景과 受容意味」, 『한국시가연구』제3집, 한국시가학회, 1998년, 117~167면.
- \_\_\_\_\_, 「서구 문예비평 이론 수용의 功과 過」, 『한국시가연구』, 제4집, 1998, 35~75면.
- \_\_\_\_\_, 「향가텍스트와 서사맥락의 합일문제」, 『한국시가연구』, 제13집, 한국시가학회, 2003년, 5~43면.
- \_\_\_\_\_, 「松尾芭蕉の俳句に對する和諍詩學的研究(마츠오 바쇼오 하이쿠의 화쟁시학적 연구)」, 『日韓比較文學シンポジウム-異發文化の同化と異化』. 東京大學 比較文學比較文化研究室, 2005年 10月 14日. pp. 1~22.
- \_\_\_\_\_, 「杜甫詩的和諍詩學-以〈春望〉爲中心(두보시의 화쟁시학적 연구-〈춘망〉을 중심으로)」, 國立臺灣大學 中文系 招請討論會, 國立臺灣大學 中文系, 2011年 12月 28日. pp. 1-10.
- \_\_\_\_\_, 『화쟁기호학, 이론과 실제』, 한양대학교출판부, 1999.
- 이사라, 「讚耆婆郎歌의 構造的 接近」, 『국어국문학』92집, 국어국문학회, 1984. 141~153면.
- 조동일, 「彗星歌의 창작 연대」, 『백영 정병욱선생 환갑기념 논총』, 신구문화사, 1982. 321~328면.
- 趙潤濟, 『朝鮮詩歌史綱』, 東光堂書店, 1937.
- \_\_\_\_\_, 『國文學史』, 東國文化社, 1949.
- \_\_\_\_\_, 『韓國文學史』, 東國文化社, 1963.
- 한창훈, 「초창기 한국 시가 연구자의 연구방법론~조운제, 김태준의 초기 시가 연구

- 를 대상으로, 『고전과 해석』, 제1집,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06년 10월. 168~189면.
- 현종호, 『조선국어고전시가사연구』,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84.
- 大唐 三藏 沙門 義淨奉 制譯, 『金光明經最勝王經』, 『大正藏』, 第16冊, T16n0663\_002.
- 三藏 鳩摩羅什 譯, 『佛說仁王般若波羅蜜經』, 『大正藏』, 第8冊, T08n0245\_002.
-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석희 옮김,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1997.
- 칼 포퍼, 이명현 역, 『열린 사회와 그 적들』 2권, 민음사, 1982.
- 테리 이글턴, 김명환·정남영·장남수 공역, 『문학이론입문』, 창비사, 1988.
- 프레드릭 제임슨, 윤지관 옮김, 『언어의 감옥』, 까치, 1990.
- 프리드리히 엥겔스, 「엥겔스로부터 J. 블로흐에게」, 소련 마르크스·레닌주의 연구소, 『맑스엥겔스 선집Ⅱ』, 백의, 1989.
- Adorno, T. W., tr. C. Lenhardt, *Aesthetic Theor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4.
- Barthes, Roland, (tr.) Richard Howard, *On Racine*, New York: Hill and Wang, 1964.
- Dorson, Richard M. (ed)., *Folklore and Folklife: An Introduc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2.
- Gadamer, Hans-Georg, tr. William Glen-Doepel, *Truth and Method*, London: Sheed and Ward, 1975.
- Lacan, Jacques, (tr.) Bruce Fink, *Écrit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6.
- Saussure, Ferdinand de, (tr.) Wade Baskin,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1959.
- Swingewood, Alan, *Sociological Poetics and Aesthetic theory*,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86.
- Wimsatt William K. and Beardsley, Monroe C., *The Verbal Icon*:

*Studies in the Meaning of Poetry*, Lexington: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82.

Worton, Michael and Still, Judith (eds.), *Intertextuality-Theory and Practice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0.

Zuidervaart, Lambert. "The Social Significance of Autonomous Art: Adorno and Bürger," *The Journal of Aesthetic and Art Criticism*, vol.48, no.1, 1990, pp. 61~77.

[www.aerith.net/comet/](http://www.aerith.net/comet/)

[www.neo.jpl.nasa.gov/orbits/](http://www.neo.jpl.nasa.gov/orbits/)

논문 투고일 : 2018. 10. 20 심사 완료일 : 2018. 11. 14 게재 확정일 : 2018. 11. 14

Abstract

## Methodologies of Studying *Hyangga*: Their Merits, Limitations, and Orientations

Lee, Do-Heum

It has been 100 years since *Hyangga* began to be studied using modern methodologies and criticism. Various methodologies ranging from positivism to semiotics have been applied in *Hyangga* studies. I will explore the merits and limitations of these methodologies and recommend the future direction of studying *Hyangga*.

Modern research on *Hyangga* ha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Positivist and historical studies contributed to restoring objective substantiation through related data, but fail to examine literariness. The Marxist study, instead of revealing the socio-economic context of *Hyangga*, limited the interpretation of *Hyangga* to its context. In contrast, the study of formalism, structuralism, and semiology adequately explained the literariness and structural meanings of *Hyangga*, but failed to offer contextual interpretation. Folklore studies have revealed the magical elements of *Hyangga* and related folktales, but have scarcely given a voice to the field without referring to magic. Psychoanalytic research revealed the internal psychology, unconsciousness, and desire of the character in *Hyangga* and folktales, but it focused on the psychological analysis of the character without revealing the characteristics of *Hyangga* as a lyric style. *Hwajaeng*-poetics synthesized formalism and Marxism to overcome these shortcomings, and implicitly analyzed *Hyangga*'s text by conducting a poetic, contextual, and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I hope future scholars would evaluate this theory and interpretation.

From a modern perspective, more work is needed to complete the modernity of *Hyangga*. What is the post-modern study on *Hyangga* that should be directed beyond the present day? The answer is transition: from identity to difference, from paternalism to feminism, from orientalism to post-colonialism, from mimesis to fantasy, from anthropocentrism to ecology, and from subjectivity to inter-subjectivity and alterity. Now these

studies needs to be interpreted in the horizon of East Asia beyond nationalism, orientalism, and modern state view.

Keywords

*Hyangga*, positivism, historical study, religious and ideological study, Marxism, folklore study, structuralism, psychoanalysis, *hwajaeng*-poetics, cultural historical study

K C I